

최창원 SK수펙스 의장 내년에도 계속 맡는다

최태원 회장, 신임 재하인
“내년에도 해야 할 일 많다”
SK그룹, 이달 사장단 인사



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23년 145%를 넘어섰던 SK그룹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86%까지 낮아졌다. 순차입금(84조원→22조원)과 계열사 수(219개→151개)도 대폭 줄었다.

최 의장은 지난 3년간의 리밸런싱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중심 그룹 재편을 위한 관계사 간 협력 및 전략 실행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빅테크와의 협력 확대, AI 생태계 구축 등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끌고 최 의장이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식이다. 개선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그룹의 사업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최 의장의 내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장이 수펙스의 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SK디스커버리 계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디스커버리 계열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민 기자

빌라까지 전월세대란...수도권 매물 36% 폭

〈연초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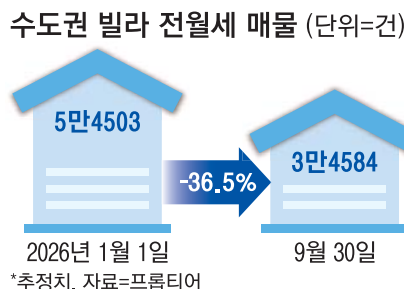
다국 장애물 치우자 ④

“원래도 빌라 투룸 전월세 매물이 많지는 않았는데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 두 건이나 진행되면서 이전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빌라 전월세 물건은 1.5룸 한 개뿐입니다. 요즘도 빌라 전월세를 찾는 분이 종종 있는데 쉽게 매물을 구하진 못하고 있습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인근 공인중개사)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품귀 현상

아파트 전세난에 빌라도 품귀
인천 54%·경기 43% 감소
전월세가격 매월 최고치 경신
“다주택자 규제 재검토해야”

이 심해지는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전월세 매물도 연초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3면
특히 경기·인천에서는 올해 빌라 전월세 매물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었다. 아파트대신 빌라로 눈을 돌리는 임차인들도 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빌라 전월세 매물 감소

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임차인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매일경제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서비스 기업 프롭티어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도권 빌라 전월세 매물은 3만4584건으로 추정됐다. 지난 1월 1일(5만4503건)보다 36.5% 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의 빌라 전월세 매물이 1만2449건에서 7041건으로 줄었다. 인천은 5908건에서 2725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서울 빌라 전월세 매물도 3만6146건에서 2만4818건으로 31%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프롭티어는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오는 중개사들의 아파트 매물 가운데 약 30%의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빌라 전월세 매물 건수는 프롭티어가 확보한 매물 자료에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빌라 매물 점유율을 반영해 추정한 수치다.

수도권 빌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전월세난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만 기자



고물가·주택난에 청년들 분노...불타는 프랑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고물가와 열악한 교육 환경, 정부의 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55만명(내무부 추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삼점 약탈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확산하면서 8년 전 프랑스를 뒤흔든 ‘노란 조끼’ 시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프랑스 남서부 리모주 시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A8면

AFP연합뉴스

IMF의 경고 “韓, AI봄 역습에 주의해야” A4면

“노는 직원에 한소리 했다가...”
‘을의 갑질’ 무기가 된 직내괴

작년 신고 1.6만건
5년만에 3배 급증

보복수단 변질로
처벌은 되려 줄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적인 처벌 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사 ‘태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인사고과에 대한 보복 수단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A10면

18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5년 1만6373건으로 5년 새 2.8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하면서 처벌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작년부터 오히려 처벌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개선 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행정·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가 1330건으로 전년(1566건) 대비 15.1% 줄어든 것이다.

위지혜 기자

38년전 AI시대 예견한 이견희...세계 1위 삼성 이끌었다

다시 보는 이견희 리더십 ①

을 영업익 371조 세계 1위 눈앞
반도체 첨단기술 시대 내다봐
SW인재 투자로 초격차 지휘



대회장이 제시한 비전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5면

18일 증권가 컨센서스 등을 종합하면 올해 삼성전자는 매출 711조원, 영업이익 371조원(약 2755억달러)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올 회계연도(1월 결산) 영업이익 전망치(2689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오는 25일 벌세 6 주기를 맞는 가운데 글로벌 넘버1 기업의 씨앗을 뿌린 이 전대회장의 미래

를 내다본 테크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전대회장 취임 당시와 비교해 매출은 300배, 영업이익은 3300배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72.7%)을 고려해도 경이적인 성장이다. 반도체·컴퓨터·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이 전대회장의 비전과 최고 기술에 대한 집착이 밑거름이 됐다.

이 전대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1988년 “반도체·컴퓨터·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에 의한 대변혁이 예상된다”며 “향후 기업의 성패는 컴퓨터 활용도와 비례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

다. 삼성그룹은 이견희 전대회장 지시로 1988년 인공지능(AI)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손욱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은 “(이 전대회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 인력을 1만명 키우라고 했다”면서 “시대를 앞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철학과 큰 그림을 제시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덕주·이승윤·한지연 기자

상생금융

B1-8면

매일경제

오늘 발행

PLUGANDPLAY
Expo

플러그앤플레이 엑스포 2026

10.21 수 - 10.24 토

exco 동관 1층

STARTUP
ARENA

스타트업 아레나 2026

